

국악으로 힐링하소

광주시립창극단 '힐링 국악한마당' 23일 물빛근린공원·24일 푸른길무대
퓨전앙상블 불랑 '와락(와樂) 꺼안우리 아리랑', 2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줄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이번 주말,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보며 코로나 19로 지쳐있던 마음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마음의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에 참여한다.

오는 23~24일 열리는 '힐링 국악한마당'은 한국무용, 단막창극, 판소리, 사물놀이 등 국악의 모든 것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3일(오후 5~7시) 광주시 남구 노대동 물빛 근린공원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이은비의 사회로 진행된다. 민속 기악곡 가운데 음악적 짜임새와 완성도가 가장 높은 음악인 '박종선 류 산조합주',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그린 입체창 '사랑가', 한량들의 격조 있고 소박하며 우아한 춤사위인 '선비학춤',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풍자가 돋보이는 단막창극 '화초장', 남도민요 대표작품 '성주풀이', '남원산성', 북·징·쟁과리·장고의 신명나는 합주로 선보이는 '사물놀이' 등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

24일(오전 11시·오후 2시) 공연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 푸른길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상임단원 이정주의 사회로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와 섬세함을 표현하는 '교방무', 대금의 명인 원장현이 한국 기악독주

곡의 매력인 산조의 형식으로 가락을 새롭게 구성한 작품인 '춤산조', 우리나라 대표 연희놀이 '판굿' 등이 펼쳐져 우리나라 고유의 소리와 맛을 한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전석 무료. 문의 062-613-8350.

퓨전앙상블 불랑은 '와락(와樂) 꺼안우리 아리랑' 공연을 선보인다. 23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의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는 대중들에게 흥겹고 즐거운 무대를 제공, 힐링과 회복, 행복의 시간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첫 무대는 불랑의 창작곡 'Beautiful Korea Fantasy'로 문을 열고, 대중 음악장르인 '인연', '나성에 가면', '붉은 노을', '아름다운 나라', 전통 음악인 '아리랑 연곡', '강강술래'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서는 불랑의 창작곡 '달무리'와 'Beautiful Korea'를 최초로 공개한다.

또한 성악보컬 권효진, 국악보컬 박혜선, 플루트 박소현, 피아노 및 일렉톤 정진영, 국악타악 김민철이 함께한다. 이 프로그램은 추후 광주문화재단TV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jcfokr>)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퓨전앙상블 불랑은 '히다'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Blanc'에서 따온 말로, 하얀 도화지 위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그려내자는 포부를 갖고 2016년 창단된 단체이다.

'쉽지만 가볍지 않은 음악'을 슬로건으로, 국악의 흥겨움과 서양음악의 서정적인 깊이를 선보이는 무대로 지난 5년동안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전석순 50명 무료관람. 문의 010-7146-931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퓨전앙상블 '불랑'



신비한 '마법의 샘'을 찾아서

ACC 창제작 어린이 콘텐츠
23~25일, 어린이극장 무대

지난해 10월 쇼케이스 이후 완성도를 높인 어린이공연 '마법의 샘(사진)'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타지키스탄 전설을 바탕으로 신비의 마법의 샘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융복합 공연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ACC 창제작 어린이 콘텐츠 '마법의 샘'을 23

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극장 무대에 올린다. 음악과 그림자극, 모래예술(샌드아트)을 결합한 공연으로 어린이에게 아시아적 상상력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객 없이 진행되는 23일 공연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ACC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24일과 25일 공연은 어린이극장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ACC는 '거리두기 객석제'를 운영하며 관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문의 062-601-4615.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 '청소년들의 지구수호프로젝트' 2기 모집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사업을 수행해온 광주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의 지구수호프로젝트(이하 청지수프로젝트)'를 지난 8월부터 6주간 진행했다. 창의도시 광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전국과 세계로 발신하는 미래 교육 모델을 개발하자는 취지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들의 지구수호프로젝트(이하 청지수프로젝트)' 2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청지수 프로젝트'는 외계인 침공에 맞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융복합 과정을 교육을 통해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연예술과 미디어아트가 중심이 되며, 지난 1기에는 임용현(미디어아트), 주말송(공연예술), 문정환, 김명우(이상 미디어아트) 신희

홍, 양정인(이상 공연예술)이 주강사로 참여하며 정덕용, 오성현(이상 미디어아트) 전체회, 노옥정(이상 공연예술) 등이 보조강사로 활약했다. 2기 또한 1기 강사진의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열린 기획'과 '주체적 참여형'으로 나뉘며 예술가들은 보조적 도움을 주는 형태다. 6주 과정은 비대면 실시간(ZOOM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며 총 2개 분반('남북극+미디어아트', '그림자극+LED')으로 편성된다. 6회차 참여시 6시간 봉사시간을 인정받으며 전체 강의 수료면 상품과 수료증이 증정된다. 참여신청은 유선(062-670-7454, 7457) 또는 미디어아트 플랫폼 홈페이지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광주학 콜로키움' 26일 온라인 생중계

대중가요 속 광주와 옛 정취와 노랫말 속에 담긴 광주 의미를 되새겨 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4시 '근대 광주 사람들'을 주제로 제4회 '광주학 콜로키움'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광주를 노래한 대중음악인들'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콜로키움은 광주 통기타1세대 가수라 불리는 국소남이 직접 좌장을, 주광 한국방송DJ협회 기획이사 주재발표를 맡는다.

주광 기획이사는 옛가요 연구모임 '유정천리'와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를 노래한 우리 대중가요를 찾아 시대별로 정리하고 분석해온 자료를 공개한다. 또한 대중가요 속에서 묻어나는 광주 모습과 도시 발전상을 모티브로 음악인들이 느꼈던 광주의 의미를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광주문화재단TV 유튜브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 광주학 콜로키움 생중계 당일 동영상이 링크 URL을 문자로 안내받고 싶다면 유선이나 이메일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문의 062-670-7434, gjcf0416@naver.com /박성천 기자 skypark@

K패션·K뷰티 이끌 지역 신진 디자이너들의 무대

28일 온라인 개막...6개 팀 참여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광주패션위크 2020'가 오는 28일 온라인을 통해 개막한다. 신진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패션필름과 디지털리뷰를 결합한 영상으로 제작해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광주 패션위크'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알리고, 인큐베이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로 거듭나도록 기회를 장을 마련하는 로컬 프로젝트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기반 K-패션·K-뷰티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뷰티·패션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패션

위크는 한·아세안 패션위크를 비롯해 서울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패션 페스티벌이 진행됐지만, 광주는 전무한 상태였다.

제1회 광주패션위크에는 전국대학생패션연합회OFF 광주지부, See_Or, DAJUNG, rewrite, Ra Shah, 리프로젝트패션학원 등 총 6팀의 신진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며 총괄뷰티디렉터는 노블리뷰티학원, 헤어스타일링에 모노브로헤어샵, 촬영은 라피션데어, 총괄 연출은 커스텀엔터테인먼트와 커스텀모델센터가 맡았다.

광주패션위크는 매년 9월, 신진디자이너의 패션쇼 뿐 아니라 토크콘서트, 뷰티·패션·모델 네트워킹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스퍼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